

# CLOUD WALKER



EDITOR AHN SANGHO  
COOPERATION KUKJE GALLERY(82-2-3210-9885)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experience a moment when time stands still with truly incredible art. However, I prefer to think of this as a moment to experience a sort of universality as opposed to being just a mere spiritual experience.*



#### PROFILE

최근 인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른 바티 커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벅시켓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녀는 여행을 위해 방문한 인도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자 인도 대표 작가인 수보드 굽타Subodh Gupta를 만났다. 그녀는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오브제와 미신에 관한 호기심, 그것들이 촉발하는 다양한 참조를 수집하고 작품에 활용하고 있다.

*Bharti Kher is well known for her use of various colored bindi (the sanskrit word for the dot) on some of her larger sculptures and pieces. While some of her works are considered extremely descriptive, the works which include bindi on their surfaces also manage to defy description.*

거대한 운무였다. 드넓은 대지와 산맥 위로 솟아난 운무. 그 사이로 막대한 여인이 보였다. 푸른빛을 띠는 그녀는 시간을 초월한 채 자신의 몸을 휘감은 방대한 사리Sari를 아주 느리면서도 절제된 동작으로 넘고 있었다. 이마 위에 얹힌 머리는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바위였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 무심한 표정과 아름다운 곡선의 몸매는 웅장했다. 거기서 오는 위압감.

실제 높이가 186cm인 이 작품의 이름은 '클라우드 워커Cloud Walker'다. 인도계 영국 작가 바티 커 Bharti Kher가 7년 동안 진행해온 여신 시리즈 중 하나다. "내가 본 작은 여신 조각에서 시작된 연작입니다. 그녀는 구름 속을 걸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여신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자문하는 그런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죠. 사리는 몸의 일부이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손에 든 갈퀴는 연장일 수도 있고, 마녀적인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표정과 절제된 말, 고개를 살짝 치켜들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작품을 설명하는 바티 커의 깨끗한 몸에도 클라우드 워커의 분위기가 깊이 배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 자신에 대한

자문 따위는 없어 보였다.

전시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바티 커가 작품을 설명하는 내내 클라우드 워커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몰입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이런 순간을 자신에게는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라고 대답했다. "내 작품에서 영적인 것을 느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이 영적인 거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이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예술에서는 시간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체험의 순간이 아니라 보편성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멈추는 순간을 시차라고 말했다. 원인과 결과의 중간 지점이 시차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집안을 상징하는 문과 기둥을 기대어놓은, 두 물체가 가진 힘이 서로 부딪히는 그녀의 작품은 그런 시차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공간과 정착이라는 문제가 상반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 상반되는 것들, 일상 속에서 맞부딪치는 것들,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주목되는 것들에 그녀는 주목한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첫 개인전의 제목이 그래서 <아노말리Anomalies · 기형>이다.

"앞으로 열릴 내 모든 전시의 이름을 '아노말리'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 초입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군상의 조각상과 신상들이 들어오는 관객을 바라본다. 관객도 이 조각상들을 볼 것이다. 원래 종교적인 기능을 한 조각상들은 이제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각상은 본디의 의미와 지나온 시간이 중첩되어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조각상과 관객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교차점에 바티 커가 말하고 싶은 아노말리가 있는 것이다.

바티 커는 그녀의 대형 조각 형상과 함께 다채로운 색의 '빈디(점의 산스크리트어)'로 하는 드로잉 작업으로 유명하다. 그녀의 조각 작품이 서사적이려면 반대로 빈디를 가지고 하는 평면 작업은 그 반대 측면에 있다. 추상이면서 미니멀하고 또 미니멀하지가 않다. 인도 여성이 이마에 붙이는 빈디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녀는 빈디를 하나씩 붙임으로써 회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각 방식에도 전하는 색채와 질감의 놀라운 레이어를 만들어낸다. 많은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는 강렬한 작업을

*At that moment I saw a Bharti Kher asking herself these same questions repeatedly about the everyday things she was doing and seeing--I saw another Cloud Walker approaching truth.*

통해 그녀는 소위 '손의 엮나감'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결과 움직임이나 글자를 겹쳐 만든 지도, 사람들, 입혀진 이미지와 부호 등으로 추정되는 추상적 얼룩을 만들어낸다. 멀리서 보면 붓 자국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관객의 눈은 수많은 반디가 만들어낸 미로 같은 복잡한 체계에 갇히고 만다. "이 작품은 '자연이 가진 무언의 행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디로 만들었죠. 반디는 '제3의 눈'이라는 은유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점이 내게는 어떤 암호로 다가옵니다. 작품을 보면 무수히 많은 점이 붙어 있지만, 그 점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숨긴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반디가 내게는 일종의 미술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로 관심을 가진 15년 전과 달리 많이 확장되었죠. 작가로서 이 소재에 대한 관심은 작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입니다. 존재나 상징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코드나 암호, 과학적인 도표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바를 만들어보고 상상하는 것이죠."

결국 그녀에게 반디 작업은 땅속에 묻힌 상자를 발굴하는 일과 같다. 상자를 여는 순간 여러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물에 반디를 붙이면 서 기존의 의미를 변형하고, 집이나 여성처럼 그녀가 주로 활용하는 관념의 어휘를 뒤섞어버린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어떤 부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시아와 인도에서 집과 가정의 공간은 여성의 영역을 이룹니다. 여기야말로 여성이 진정으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집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원인 정신적 연결을 흐리거나 심지어 위협하고 제거할 수도 있는 사회적·경제적·성적 과도함으로 채워져 있죠." 전시 작품에 대한 바티 커의 설명이 모두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녀의 주위로 기자들 대부분이 몰려들었다. 기억과 문화적 신화, 사회적 계급 체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제기해온 그녀에게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의 종교적 수행과 작품 속에서 느끼는 종교적 체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반디 같은 종교적 소재와 신화에 흥미가 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답변은 시종일관 똑같았다. "인류학적

차원에서의 종교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행을 생각지 않더라도 과학이나 수학에도 수행 Practic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글을 쓰는 작가들은 날마다 글을 쓰고, 나는 날마다 작업실에 갑니다. 나는 영적인 수행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수행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다만 일상을 해체하는 것이 내가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인 겁니다." 같은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는 답을 했다. 그 내심을 알 수 없는 표정에서 더 궁금증이 일었다. 별도의 인터뷰 시간에 관련된 질문을 하다 대답을 어깨 한 번 으쓱하고 마는 통에 오히려 인터뷰어로서 당황하기도 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매일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고.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내가 작업실에 왜 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루에도 자신이 하는 것과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수십 번의 똑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대답하고 있는 바티 커가 보였다.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또 하나의 클라우드 워커가 보였다. N